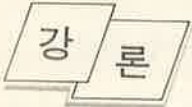


주의 승천 대축일
 (세계 홍보의 날)
 제 1 독서 : 사도 1, 1-11
 제 2 독서 : 예레 1, 17-23
 복 음 : 루가 24, 46-53

순정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루가24, 48-49).



대중매체(매스 미디어)의 중요성



박 성 팔 신부(홍보국장)

지난 10여년 동안 현대의 홍보수단(대중매체)-출판물,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은 놀라운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현대의 홍보수단은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정치, 경제의 불안정, 윤리 도덕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에 편승하여 사람들의 가치관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영원, 사랑, 진리, 형제애 등 참다운 가치를 추구해야 할 홍보수단은 언제부턴가 왜라적이고 상업적이며 한시적이어서 그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지 이미 오래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각자는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대중매체(라디오, 텔레비전, 출판물 등)에 포로가 되어 그나마 갖고 있는 올바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각해 보면 자신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소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30분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신자들이 성당에 나가는 시간은 일주일에 3시간 정도라고 볼 때 대중매체를 통한 복음전파가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억만의 사람들이 매일 몇 시간씩 지속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복음의 메시지와 접촉을 가져본 일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고, 또 신앙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알았던 사람들도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복음의 메시지와 내적 교류를 상실해버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꾸만 정치화, 비인간화, 상업화되어가는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 우리는 복음전파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대중매체(매스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 걱정하고 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에

대응하여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신앙인들은 물론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주신 매스 미디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

혹자는 말하길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교회 방송국이 필요없다고 한다. 물론 이 말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견이지만 현대 세계에 있어서 전파매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 때 성당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방송국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오늘은 제26차 '홍보의 날'이다. 과연 나는 하느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전파를 위해 교회의 출판물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전파매체(텔레비전, 라디오 등)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이제라도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신기한 기술

신 광 연(가브리엘)

현대인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신문과 월간지, 주간지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 그래서 현대를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의 시대라고도 부른다.

매스컴의 출현은 인쇄술과 통신기술의 개발로 가능했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인간지능이 발견해낸 신기한 기술”(매스 미디어 교령 1항)이다.

오늘날의 매스컴은 국내는 물론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일을 거의 동시에 또는 몇 시간 안으로 전해준다. 또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이다.

교회는 현대 매스컴의 놀라운 가치를 인정하여 25년 전인 67년 세계 홍보주일을 제정했다.

매스컴을 한마디로 사회(세계)의 거울이라고 일컬어도 된다. 그것은 그날그날 사회의 모습을 비춰주기 때문이다. 매스컴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거울에 비추듯 알려줄(보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논평과 해석 주장 등을 실어 사회나 국가 크개는 세계가 지향해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의 힘이 크고, 빠른 보도와 빠른 논평은 세상을 하느님의 뜻과 같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만 왜곡된 보도와 논평은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매스컴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과연 ‘하느님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신기한 기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인가.

통신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더욱 신속한 보도를 하고 있다 하겠지만 비록 작은 사건이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을 ‘빠뜨리거나 큰 사건을 줄여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논평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어떤 시기에 열부 매스컴이 독자 또는 국민을 위해 권력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싸운 적도 없지 않으나 요즘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보다는 가진 자의 취향에 맞춰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또한 사회의 밝고 화려한 면만 크게 비취 세상사가 모두 잘되고 있다는 허위의식을 심어주고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너무나 외설스러워 가정에 들고 갈 수 없는 ‘엘로우 페이지’는 양식있는 시민들의 분노마저 자아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매스컴도 기업인만큼 요즘은 경영이 앞선다는게 진문

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사회를 타락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 미디어가 있다면 차라리 도태되는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사회일반의 매스컴뿐 아니라 요즘엔 교회에도 많은 매스 미디어(Mass Media)가 있다.

방송이 있고 신문이 있으며 갖가지 월간물도 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이 다양한 매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게 솔직한 느낌이다.

과묵한 탓으로 교회 미디어의 시청자 또는 독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의 각 교구는 나름대로 정성을 들어 교구소식과 교회, 강론 등을 담은 주보를 발행하고 있다. 대개는 팔절지 몇 페이지에 불과한 작은 분량인데도 많은 교우들이 이를 허술하게 보아 넘기고 있음은 주일날 미사 끝에 성당에 버려지고 가는 주보가 여기저기 눈에 띄는 것으로 보아서도 쉽게 짐작된다.

세계 홍보의 날을 맞으며 교회의 여러 홍보물이 보다 널리 보급되고 교우들의 사랑을 받아 선교에 큰 몫을 하게 되기를 기원해본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1고린9,16).

숲정이 산책



홍보국 비디오 소개

대여 : 1개당 1,000원

어린이

- 그리스도폴 · 마더 데레사 : 45분
- 사랑 속에 오시는 하느님 : 40분
- 아이디의 모험 : 120분
- 천사들의 합창 : 60분
- 메리 포핀스 : 139분

청소년

- 몰로카이 : 110분
- 고백의 비밀 : 104분
-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 180분
- 사계절의 사나이 : 120분
- 죽은 시인의 사회 : 129분

사랑의 하모니

주인공 테일러는 인종 편견을 지니고 있는 엄격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그는 내성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사상을 지닌 소년이었다. 우연히 음악에 재질이 많은 흑인 소년 랜디를 사귀게 된다. 그들의 우정 앞에서 기성세대의 심각한 편견과 학생들 사이에 압력으로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 마침내 그들은 손을 맞잡고 학교 합창단으로 천상의 메아리를 소리 높여 부르게 된다.

* 92분, 청소년

성인

- 부활의 힘 : 60분
- 나자렛 예수 : 480분
- 두 개의 십자가 : 103분
- 성프란치스코 : 140분
- 초대받은 사람들 : 90분
- 보석상 : 90분
- 사랑의 기적 : 117분
- 엘레니 : 116분
- 전쟁과 평화 : 260분

하느님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보기 좋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나 현대 물질문명이 확산되면서부터 온갖 공해로 인해 대지, 물, 공기,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환경 공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의식하고 공해 추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겠다.

* 60분, 교육

교육

- 미사 해설 : 60분
- 지구를 살리자 : 110분
- 우리는 도시 빈민 : 36분
- 상계동 올림픽 : 29분
- 의자 · 이웃 사랑 : 20분
- 꽃의 우정 · 용서 : 16분

제26차 세계 홍보의 날 교황 담화문

대중매체와 복음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지침에 부응하여, 교회는 스물 여섯 해 동안 세계 홍보주일을 거행해오고 있습니다.

홍보의 날을 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인간 역사에 있어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선물, 인간들 사이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고양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그 모든 기술 수단의 선물을 감사의 정으로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말하고 듣고 봄으로써 고립과 고독에서 벗어나 우리 가슴속의 생각과 감정을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그 축복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씨를 쓰고 읽음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받고 또 우리 자신의 체험과 반성을 후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된 그 선물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축하고 있는 바로 그 매체는 인간 조건의 한계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며, 개인과 사회 안에 있는 죄악의 실상 그리고 슬한 허울 아래서 인간들이 서로 서로를 파괴하는 무자비한 폭력과 불의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우리는 흔히 전세계 도처를 휩쓰는 잔혹한 참상을 지켜 보아야만 하는 무력한 방관자의 처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잔혹성의 이유야 역사적인 분쟁이나 인종적인 편견, 복수의 원욕, 권력에 대한 욕망과 소유 욕구, 이기심 또는 인명 및 인권의 경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건들과 그 동기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선으로써 악을 이겨내도록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생활의 증거로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현명하신 말씀처럼 “현대인은 스승의 말보다 좋은 표양을 주는 사람의 말을 기꺼이 듣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는다면 스승이 좋은 표양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현대의 복음선교, 41항).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어야 하며, 우리의 빛은 평화로운 천국에 이르는 안전한 길을 밝혀주는 햇빛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타협도 없이 “밝은 대낮에” 그리고 “지붕 위에서”(마태 10, 27; 루가 12, 3)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표현 방법과 사고 방식에”(일치와 발전, 11항) 적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시대의 특징인 온갖 새로운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데에는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기술이 날로 발전해가는 오늘날 이러한 힘있는 수단을 교회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현대의 복음선교, 45항).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세계 홍보주일에 즈음하여 이 분야의 무수한 기구와 단체들 가운데서 가톨릭 활동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 개의 커다란 가톨릭 매체 기구들, 곧 국제 가톨릭 영화시청각협회(OCIC), 국제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UCIP), 국제 가톨릭 방송인협회(UNDA)를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남녀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가톨릭의 전문 언론인들이 모인 이 거대한 집단은 이 특별한 날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을 각성하여야 하며, 또한 전신자 공동체와 더불어 정신적인 지원과 확고한 연대 의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대중매체를 통한 복음 메시지의 전달과 이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훈련에 한층 더 많은 활동과 긴급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가톨릭 기구들과 수도회들과 교회 단체들, 특별히 각국 주교회의와 지역 주교회의에 호소합니다. 대중매체 안에서 교회의 현존을 강화시키십시오. 관련 가톨릭 기관들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홍보수단을 더욱 광범위하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힘을 복돋아주시어 그들에게 이토록 분명하게 요구되는 일에 거듭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보증으로서, 언론인들의 노력에 대한 하느님의 강력한 도우심의 보증으로서, 저의 사도적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효소의 명품
보사허 제 99호, 품목허 제99-1
팔보종합아채효소
건강을 가꾸어드립니다
전북지사 ☎ (0652)74-1161
금암동 로타리 KBS 중간
손석종(안셀모), 김제철(안젤라)

조주온 치과 의원
이전 확장 개원합니다.
(6월 초)
조 주 온(헬레나)
이 증 민(요 션)
중앙 성당 맞은편(허기석내과 건물)
☎ 87-8291

(주)선우관광
• 대만 3박4일 모집중
• 특별 요금 ₩288,000
• 매주 수요일 출발
이 증 길(요한)
☎ (0652)87-9797

고급 적벽돌 생산업체
(환원벽돌, 변색벽돌, 미다시)
제1공장: 성심연와
(0658)546-4174
제2공장: 대진요업
(0658)546-7080
본 사: (0653)51-0488
대표 차 계 철(베드로)

홍보 사도직에 관한 의견

세계 홍보의 날에 지향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하느님의 백성을 교회의 사목적 관심과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홍보 활동에 참여시키는 일이다.

이에 교황청 매스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면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1. 정보의 증대

현대의 정보는 인간과 사회 및 교회의 발전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황의 음성이나 주교의 음성이 모든 신자들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온 세계에 미치는 것도 아니다. 정의, 교육, 가정, 자유-종교적 자유를 포함해서-에 관한 기본 정보문제가 아직도 국제 정보에서 적절한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

2. 전문가들의 훈련

매스컴과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책임을 더욱더 자각하고 이해심과 영감, 분명한 가르침과 도의적 뒷받침 그리고 보다 큰 정신 및 문화적 양성의 기회를 교회에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출판물과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에 있어서 협조와 지도를 교회에 구하고 있다.

3. 시청자들의 교육

현대는 모든 사람이 매스컴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홍보수단에 의해서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적절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홍보수단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 일이 자주 있다. 따라서 교육자들과 부모들 및 사목적들로부터 시작해서 홍보수단에 의해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에 대하여 능동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신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4. 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복음화
전자 미디어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복음화를 실천에 옮길 뿐만 아니라 세계는 광범위하고 그 거리가 아주 멀다는 점에서도 '복음화 준비'와 '복음화'에 홍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즉,

- 교리교육에 홍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출판물, 라디오, 텔레비전을 이용하며
- 홍보수단을 통해서 교회의 생활을-전례, 사명,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5. 기술적 발전

위성 중계, 미니 카세트, 케이블 텔레비전 등은 모두 홍보수단이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실례이다. 교회는 능동적인 관심을 갖고 언제나 각 발전에 교회의 현존을 확보하며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홍보수단의 발전과 보조를 함께 취해야 한다.

6. 재정

교회를 위한 홍보체제의 발전은 많은 재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크리스찬들의 체계적인 협력을 절대 필요로 한다.

이상은 홍보의 날에 교황청 매스컴위원회에서 홍보 사도직에 관하여 제시한 내용이다. 우리는 복음전파를 위해 우리 시대의 특징인 온갖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겠다.



요십이 (982) 김병오

민자당 후보경선
나보다 잘 뛰면 안되니. 이 쇠덩이를 발에 달고...
외파

뒤늦게 따라오세요!
나보다 너무 늦게 따라오면 안 좋으나...

내 지팡이를 꼭 잡고...

신축 기금 마련 바자회
푸짐한 상품과 별미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기간 : 6월5일~8일(4일간)
• 장소 : 용머리 천주교회 (효자동 주공3단지)
☎ 87-0441

신태인 본당신부님 부친
나마태오 기일
• 일시 : 6월4일(목) 오전11시
• 장소 : 신태인 성당
• 많은 참석과 기도바랍니다.

수의전문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진주시 완산구 서신동
조인국(엘리아)
이정금(모니카)
☎ 77-1392

젼마·조 오피
여성 하이팻션
인후동 성락프라자 1층 139호
최바울라
☎ 76-1964

경동보일러 정주대리점
난방 자체 일정 도산매
유 태 수(안드레아)
이 영 순(엘리사벳)
☎ (0681)537-5800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 75-0550

정원공사
고급 지택·일류 정원
조경수 } 수종 다수 확보
정원수 }
☎ (0658)42-1247
(0653)51-1469
장승용(안드레아)

여성 하이팻션
인후동 성락프라자 1층 139호
최바울라
☎ 76-1964

T.V. 비디오

어떻게 보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현대 사회에서 대중매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영향력은 막강하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생활을 하는 동안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 등 각종 매체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런 대중매체의 숲에 둘러싸인 인간은 보다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창조된 대중매체에 의해 오히려 지배당하는 존재로 뒤바뀌게 되었다. 오늘날 대중매체는 광고를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소비주의를 강조하고 파 소비를 부추기고 있으며 외래 선호사상을 조장, 황금만능주의 등 성실한 삶의 자세보다는 요령과 편이에 입각한 삶으로 잘못 인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난무하는 여러 대중매체에서도 인간에게 평안함과 정서를 느끼게 하는 좋은 내용들이 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내용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맑고 덜 자극적인 작품, 작위적이거나 거추장스러운 부담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의 되돌아봄과 다시 다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 소멸되어가는 이웃과의 정다운 관계를 부추기고 되살려주는 작품, 강인한 인간의 생명력을 끈끈하게 그리는 작품, 인간의 서정성과 따뜻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내용으로 억지나 허세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만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고향을 잃은 현대인에게 고향을 찾아주는 값진 매체들이 된다. 이런 매체들은 시청자의 정서를 되살아나게 하며 생각하는 시청자를 만들어준다.

반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적인 감정에만 매달리게 하는 대중매체들이 너무 많다. 그중 스트레스 해소용 오락,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비인간적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건진하고 유쾌한 휴식과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줄 염려가 크다.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나 비디오에서도 '사랑'을 참된 의미로 전달하기보다는 대부분 변질된 상태로 강조하고 있으며,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기보다는 비인간적 특성이 강조된 뒤틀린 인간상을 보다 즐겨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무비판적인 자세로 습관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정신적 자살행위와 같다.

그러면 이처럼 인간의 정신을 말살시켜가고 있는 대중매체를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올바른 시청을 위한 한 방법으로 '모니터(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 운동'을 말할 수 있겠다. 예컨대 아파트 동 단위의 주부들, 초중고 학교 반별 자모회, 교회 안의 교사 및 단체, 서점 정기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 운동을 통해 올바른 미디어 교육을 시켜나갈 수 있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가족간의 대화를 통한 올바른 미디어 교육이다. 부모들의 적극적인 지도로 텔레비전, 비디오 시청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며 동시에 부모가 같이 시청에 참여하여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방식의 시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텔레비전, 비디오를 보고 나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의 느낀 점, 인상에 남은 장면, 이해가 힘든 부분 등에 관하여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다면 이상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샘을 잃는다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인간의 생명을 쪼먹는 나쁜 대중매체 앞에서 깨어 있는 사고와 의연한 취사선택의 자세 그리고 도전이 필요한 때이다.

피아노
 사람에게 생명이 있듯
 약기에도 생명이 있다
 적은 관심으로 피아노의 소리를
 정확하고 아름답게 듣자.
 조율상담 김지나(세실리아)
 ☎ 82-9002

Century 개업 안내
공기압축기
 공압 관련 기기 및 부품
 전복 경원 세기 전주직매장
 신형식(마르티노),
 류경수(스콜라스티카)
 ☎ (0652)254-3717

루벤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
 조민구(프란치스코)
 유해미(마리아)
 효자동 한양 운남아파트상가
 ☎ 224-1696

주단·침구·혼수 전문
부인주단
 김한중(오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동
 ☎ 84-7294

교 구 소 식

❖ 신앙 강좌 특강

- 때 : 6월8일(월) 오후8시-10시
- 곳 : 중앙 성당
- 주제 : 종말론,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 강사 : 민병섭 신부(성서학 박사)
- 회비 : 1,000원(교재대)
- 문의 : 사목국 성서부

❖ 교구장 분당 사목방문

- 때 : 6월2일(화)
- 곳 : 영등동 성당(오전10시)
황동 성당(오후2시)
- 때 : 6월4일(목)
- 곳 : 동산동 성당(오전10시)
호성동 성당(오후2시)
- 때 : 6월5일(금)
- 곳 : 합열 성당(오전10시)
나바위 성당(오후2시)

❖ 상지원 사제관 축성식

- 때 : 6월6일(토) 오전10시
- 곳 : 상지원 공소

❖ 교리교사의 날

- 때 : 6월6일(토) 오전10시
- 곳 : 해성학교 강당

❖ 축! 견진

- 때 : 6월6일(토) 오후3시
- 곳 : 송학동 성당
- 때 : 6월7일 오전10시30분
- 곳 : 중앙 성당

❖ 가톨릭 언론인회 모임

- 때 : 6월1일 (월)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때 : 6월6일(토) 오전9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에서 출발

❖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때 : 6월7일 오전9시
- 곳 : 가톨릭센터에서 출발

❖ 성모의 기사회

- 때 : 6월6일(토) 오전10시
- 곳 : 효자동 성당

❖ 교도소 재소자 영세식

- 때 : 6월3일(수) 오후1시30분
- 후원 회원과 함께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6월15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엘레니
- 회비 : 1,000원

성소모임

❖ 성바오로딸수도회

- 때 : 6월7일 오후2시
- 곳 : 성바오로 서원 2층
(0652)252-3398

❖ 살레시오수녀회

- 때 : 6월7일 오후2시
- 곳 :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홍보 공해

오늘날 각종 공해 중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있다. 가족들간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텔레비전 속의 과대 광고물, 수없이 쏟아지는 불량 서적들, 청소년들에게 치명적 해를 주는 음란 비디오 등, 각종 홍보 매체 수단들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었는가 하면 반대로 해악을 주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읽을거리, 볼거리, 들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는 그리 쉽지가 않다. 우체국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홍보물들, 걸장 한 번 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인쇄 판촉물들은 자원의 낭비는 물론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공해를 안겨주는 셈이다. 최첨단의 과학문명을 통해 쏟아지는 '홍보 공해' 들을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심각하게 생각치 않을 수 없다. 책 한 권의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때임을 자각하자.

안관용내과의원

원 장
의학 박사 안 관 용(루가)
내과전문의
전주시 덕진구 중노송동 2가 505-22
(진교 앞, 풍남국교 쪽)
☎ 86-0815, 85-0325

광신보일러 공구사

귀뚜라미, 경동, 대원,
ABC보일러,
각종 공구 판매
박찬근(필립보), 객선지(비비안나)
☎ 86-5038
구 형무소 삼거리←→모래내

정연 머리방

신부화장전문, 특수 헤어스타일,
컷트, 파마, 피부미용관리
효자동 제일여객 앞 골목
조 정 연(글리라)
☎ 223-4701

헬스북, 수영복, 무용복

프리드

김 안 순(마라나)
코아백화점 옆 육교 건너
중앙신협 옆
☎ 254-0322

한라 스포츠

등산, 낚시, 스포츠용품
자갈 텐트 셋트 염가 판매
(현금, 신용카드 분할 판매)
송 헤 리(살로메)
관동로 전주 전신전화국 앞
☎ 84-2941

현대 미용학원

미용·피부, 본과, 연구과
☎ 86-2211, 254-3003
김금순(데레사)
진북동 제일예식장 맞은 편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람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1. 오늘은 주의 승천 대축일: 율늘이와 국수잔치-공식미사 후 2. 혼인: 오늘 12시, 신랑-박인애(요한), 신부-임수연 축하합니다.
3. 영세자 집중교리: 2일(화)부터 6일(토)까지, 오전 9시30분 저녁미사 후 4. 자모회, 성심회: 2일(화) 어머니미사 후 5. 반목장 모임: 4일(목) 전10시 7. 성시간: 4일(목) 저녁미사 8. 사목회 상임위: 5일(금) 저녁미사 후 9. 병자봉성체: 4일(목)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10. 초·중·고 교리교사 체육대회: 6일(토) 해성고등학교 11. 견진교리(중·고생): 6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후6시 12. 영세식: 다음주일 공식미사 중 13. 금주청소: 중노21,22반 차주청소: 중노23,24반 14. 성심회 단합대회: 공주황새바위(저녁미사없고 새벽미사있음)
 지난주 봉헌금: 904,910원 교무금: 817,000원
 이차현금: 237,31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1. 초·중·고 교리교사의 날: 6월6일 해성학교 율호관
2. 남전주지구 중·고 학생 체육대회: 6월7일 교육대 운동장
3. 견진교리: 15일(월)~19일(금) 오후 7:30분
4. 회합: 율뜨레아(2일 저녁미사 후) ② 자모회(4일 오전10시) ③ 사목회(7일 저녁미사 후) ④ 대건회(7일 공식미사 후)
금주전례: 정승훈 독서-신일규씨 부부
봉헌-이태영씨 가족
차주전례: 오교성 독서-한광석씨 부부
봉헌-조종일씨 가족
 지난주 봉헌금: 569,060원 교무금: 1,024,2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 ※ 축 1 예수승천대축일:** 나는 세상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 주일미사시간 변경: 오전 9:30(공식) 오후 3:00(어린이) 오후 8:00(저녁) 2. 사목회: 6일(토) 저녁미사 후 3. 성모회: 오늘 미사 후 4. 수녀원 신축 추진위원 임명: 위원장-한동옥, 부위원장-유순천, 총무-김중석, 위원-강순옥, 강낙우, 오철규, 양대환, 수고하셨습니다. 5.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다음주) 7. 문규현 신부님을 위한 기도회: 1일(월) 저녁 8:00 중앙성당 8. 봉성체: 2일(화) 9. 설서읽기: 신병16장~34장 10. 청소봉사: 평화의모후Pr 11. 금주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 유순천 ② 이석남 봉헌-한동옥, 황옥섭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 양대환 ② 김갑자 봉헌-김단오, 김중석씨 부부 12. 감사: 행사에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제대꽃-이승복, 황태홍 형제님 지난주 봉헌금: 305,9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 오늘은 예수승천 대축일(청소년주일) 6월은 예수성심성월!**
1. 회의: ① 사목회-6월3일(수) 저녁미사 후 ② 자모회-6월3일(수) 오전10시30분 ③ 반장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④ 꾸리아-다음주일 오후 2시 ⑤ 성심회-6월13일(토) 오후 2시
2. 일림: ① 수녀님 연례경-6월1일(월)~6월6일(토)까지, 신자들의 많은기도부탁합니다. ② 견진교리-6월8일(월)~6월12일(금) 저녁미사 후 ③ 견진성사-6월14일 공식미사 중에 ④ 중·고학생 체육대회는 연기되었음 ⑤ 용머리성전 건립 마차회에 우리 다투어 힘조랍니다.
 지난주 봉헌금: 694,950원 교무금: 561,000원
 2차현금: 279,4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바자회 준비에 전신차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바자회 봉사 책임은 용머리까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 9일기도: 27일부터 미사 30분전-전신차 참석 바랍니다.
3. 6월5일(금) 예비자교리: 6월2일(화) 11시에 있습니다.
 지난주 봉헌금: 646,900원 교무금: 1,038,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심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 오늘은 예수승천 대축일입니다.**
1. 성모의 밤: 오늘 저녁 7시30분 성모동굴 앞
2. 성가정회: 6월1일 오전11시
3. 성체강복 및 조배: 6월4일 오전10시
4. 병자 영성체: 5일 5. 교사의 날 행사: 6일 전10시(해성학교 율호관) 6. 치주: ① 율뜨레아(공식미사 후) ② 계속글라리아협회(후1시30분) ③ 남전주지구 중·고등부 체육대회(교육대학운동장 전9시) 7. 조영자 합동면담 및 헌배: 미리 사무실에 접수바람.
* 지참서류: 호적등본, 세례증명서 * 면담: 14일 후2시 * 헌배: 21일 후2시 8. 헌배예식(토요일): 2대이상 불허 9. 제단체 및 개인에게 변통사항이 있을 시 사무실에 연락바람.
 지난주 봉헌금: 1,529,950원 교무금: 1,672,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 ※ 6월은 예수성심성월:** "예수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 축! 세례: 새 가족이 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1. 예비자 인도기간: 1일~14일, LM 단원은 1인1도
2. 성시간 성체강복: 4일 후 7시30분, 무엇하는 시간일까요?
3. 사목회 상임위원회: 5일 후 8시, 6월의 계획은 무엇인가?
4. 구역 반목장 연수: 2일 전10시30분, 불참시 대리인 참석
5. 첫 영성체 교리시작: 1일~20일 후5시, 부모님의 협조바람.
6. 유아세례: 6일 후3시, 신청서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람.
7. 초·중·고 교리교사 대회: 6일 전9시30분~후5시, 해성윤호관
8. 미사시간 일부변경: 월요일과 주일 아침 5시30분으로
9. 가정미사: 2일 후8시 주광202동 105호 양세시리아 가정
10. 회의: 부녀회-어머니미사 후, 꾸리아-7일 후2시30분
 지난주 봉헌금: 857,400원 교무금: 1,364,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구역반장 월례회: 6월2일(화) 오후 8시30분
2. 대건회: 4일(목) 오후 8시30분
3. 사목회: 다음주일 오후 8시-홍교부장님택(신일APT2동407호)
금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윤금순, 김호성
차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송용래, 김영우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사목회장이 동 섭

- ※ 오늘 예수승천 대축일**
1. 모임안내
① 사목회-5일(금) 오후 8시
② 구역봉사자모임-3일(수) 오전10시30분
③ 성모기사회-6일(토) 오전10시미사
④ 성구회-테니스대회(오늘오후2시) 교육대학교
오늘 본당을 위한 2차 헌당있습니다.
 지난주 봉헌금: 1,237,260원 교무금: 1,414,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 덕 도

1. 축! 예수승천이외미사: 용산리 해성학교 뒷산(저녁미사는 본당에서 있음) 2. 요셉회: 야외미사 후 3. 제대회: 1(월)10시 4. 봉성체: 4(목)오후2시 사무실에 신청바람 5. 여성분과회: 5(금)10시미사 후 6. 성전신축추진위원회 138명 위촉, 앞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7. 성전신축위원피칭: 13(토)~14(일)천호성지 8. 첫영성체 준비교리: 6월1일(월)~20(토) 사무실에 신청바람 9. 혼인조당자 신청 10. 6월 전교모임(반모임): 부부동반하여 특별히 뜻있는 나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차주모임-꾸리아 신축현금봉헌액-250,000원 금주전례: 해설-김낙환 독서① 이태영 ② 조선옥 미사봉헌안내-심학섭부부, 박준원부부 차주전례: 해설-김홍두 독서① 조세열 ② 박근자 미사봉헌안내-이시영부부, 김삼권 부부
 지난주 봉헌금: 957,670원 교무금: 1,486,000원